

토마스 제퍼슨과 웬델 베리의 중농주의 : 이상과 실천

김은성*

-차 례-

1. 서론
2. 토마스 제퍼슨의 중농주의: 비전과 이상
3. 웬델 베리의 중농주의: 현실과 실천
4. 결론

*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국문초록]

제퍼슨의 중농주의와 베리의 중농주의는 농업의 중요성, 농부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자립, 독립, 협동, 우애와 같은 덕목 추구,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을 기반으로 소규모 공동체 형성 등에서 공통점을 공유한다.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미국 사회를 위한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프로그램이며 궁극적으로는 중농주의적 공화국 건설과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에 반하여, 베리의 중농주의는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의 변질 그리고 그 변질이 미국 사회에 미친 결과들을 수정하고 극복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팽창적 자본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단위 기업농업 방식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면, 베리의 경우는 과거에 대한 비판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두 사람의 시대적 차이의 결과이다. 즉, 제퍼슨은 18세기에 독립 이후 이상적인 미국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정치, 경제원리를 제시하였지만, 그 후 역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제퍼슨의 비전은 실패하였다. 베리는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실패의 과정과 결과를 목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만의 중농주의적 비전을 주장하고 직접 실천한다. 따라서 베리는 제퍼슨이 강조했던 중농주의 덕목에 참회, 충절, 그리고 헌신과 같은 덕목들을 추가한다. 이 때문에 그의 중농주의는 정치, 경제적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책무이다.

주제어 : 토마스 제퍼슨, 웬델 베리, 중농주의, 이상과 현실, 농부, 자본주의, 농업

1. 서론

『침묵의 봄』(*Silent Spring*)의 저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이 책에서 살충제와 제초제와 같은 농약의 무분별한 살포가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대의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62년에 출판된 이 책에는, 인간의 무지 속에 20세기 초부터 당시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농약이 자연에 축적되면서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결과가 서술되어 있다. 카슨은 20세기 초 미국 농업의 문제로 과도한 농약 사용 외에 거대한 기업 농장의 단일 작물 경작을 지적한다. 농약 사용과 단일 작물 경작은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농업 방식이며 그 목적은 생산력의 최대화이다.

농사에서 가장 큰 위협은 해충이라는 일컬어지는 곤충들이어서, 병충해를 막고 최대한의 생산을 이루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만, 카슨은 오히려 농약 살포와 단일 작물 경작이 병충해에 의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욕심과 자연 생태계 질서에 대한 무지 또는 지식의 한계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침묵의 봄』에서, 해충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으로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도 제시된다. 운송 수단의 발달, 활발한 무역 증가 등으로 인하여 미국에 유입된 곤충들은 기존의 천적에 의한 조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급격하게 수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그 해충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약 사용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카슨이 신랄하게 비판한 농업의 악순환 즉, 병충해의 원인과 농약의 무차별한 사용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웬델 베리(Wendell Berry)의 중농주의를 비교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제퍼슨이 일종의 국가 이념으로 제시했던 중농주의 농업 양식이,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변질되어 고착된 모습이 『침묵의 봄』에서 나타난 폐해이다. 이에 대해 베리가 비판하고 그의 조상들의 죄에 속죄하며 제퍼슨의 원론을 회복하고자 한 점이 그의 중농주의의 핵심이다. 카슨이 생산성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농약 살포와 단일 작물 경작과 같은 농업 방식에 대해 가장 우려하면서 경고하는 점은, 이 농사 방법이 자연 생태계 질

서 교란뿐 아니라, 특히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 자신 삶이 세대에 걸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카슨은 이러한 농업 방식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미국 건국의 기본이 되었던 인권과 권리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국 조상들의 한계와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그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인지 없이 이러한 독극물에 노출시켜 왔다. 권리장전이 한 명의 시민도 사적인 개인 또는 공적인 관리에 의해 살포된 치명적인 독극물에 대해 안전해야 하는 점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는 우리의 건국 조상들이, 상당한 지혜와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13)

카슨이 보기에 미국의 농업 방식은 초기 미국 건국의 핵심 규범이었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파괴한다. 건국 조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제퍼슨은 중농주의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소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독립과 자율, 우애, 협동, 그리고 자급자족과 같은 덕목들이 적용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독립과 건국 이후 미국은 산업화 그리고 국제화 같은 국내외의 상황 등으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농업 방식과 구조는, 카슨이 지적하듯이, 제퍼슨이 바라거나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변했다. 소규모 농장은 거대한 기업형 농장으로 편입되었고, 농약 살포와 단일작물 경작은 생산력의 최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분명 인간의 욕심이 주요 동인이었다. 18세기 이후 많은 문학작품이나 기록물에서 미국의 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미국인들의 과잉 소비와 탐욕을 비판하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카슨은 산업화 또는 세계화와 같은 사회 변화 구조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침묵의 봄』에서 카슨은 “지금은 전문가의 시기”이며, “또한 산업이 지배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벌려는 권리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13)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농업 방식의 원인을 암시한다.

베리의 중농주의는, 카슨이 비판하는 농업 양식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 또는 영향 등을 추적하고 제퍼슨이 강조했던 기본 덕목들을 농사를 통해서 복원하려는 실천이다. 제퍼슨과 베리의 중농주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단지 농업에 관한 이론이나 방식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근본적인 원리이자 이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퍼슨과 베리의 중농주의를 비교 연구하며, 제퍼슨이 주장했던 중농주의 기반 사회 덕목의 상실과 이 과정을 추적하고 복원하려고 했던 베리의 중농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토마스 제퍼슨의 중농주의: 비전과 이상

18세기, 미국 독립혁명과 독립전쟁 이후 미국에 거주했던 프랑스 출신 크뢰베케르(J. Hector St. John de Crevecoeur)는 그의 저서 『어느 미국 농부의 편지』(*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에서 “미국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의 저서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 즉 신대륙에서 탄생한 신생국의 가장 이상적인 정체성에 대한 저자의 바램이다. 이 정체성, 즉 중농주의적 공화국은, 제퍼슨이 지향했던 중농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중농주의적 공화국의 기본 관점이다. 따라서 크뢰베케르가 추구했던 신생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성은 제퍼슨의 중농주의를 이해하는데 근간이 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뢰베케르는 (백인에게) 백지상태였던 신대륙의 땅에서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에서도 어떠한 위계적 질서와 억압이 없는 평등한 사회 그리고 자립, 독립, 협동의 덕목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형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구세계와 신세계와의 비교에서, 구세계에는 억압적이고 계층적인 전통이나 제도가 지배적이거나 확고한 반면에 신세계의 광대하면서도 순수한 자연은 평등한 사회와 덕목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어느 미국 농부의 편지』에서는 구세계의 억압적이며 불평등한 정치와 사회체제는 “초라한 가축과 사람, 빈곤을 드러내는 흙 오두막과 처참한 집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적의적인 성채와 오만한 대저택”(67)이라는 표현으로 암시된

다.

억압적이고 타락한 구세계와는 달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국가를 건설하려던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와 덕목은 평등, 정의, 독립, 자립, 자족 등이었다. 크뢰베케르와 제퍼슨은 이러한 가치와 덕목들은 땅과 자연에 내재하며, 땅에 기반하는 인간의 노력 또는 노동, 즉 농업에서 최대한으로 구체화 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람의 중농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던 신대륙의 자연, 개인의 노동, 그리고 땅의 소유였다. 신대륙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어떠한, 특히 구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제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백지상태, 노동은 자립과 독립, 그리고 소유는 정당하면서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상징이자 실재였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크뢰베케르는 그의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한다.

크뢰베케르에 따르면, “이전에는 투박했던 땅은 나의 조상에 의하여 즐거운 농장으로 변화되었고, 그 농장은 다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확립시켰다”(54). 따라서 “나의 땅으로 들어서면 소유, 천부적인 권리, 그리고 자립에 관한 기쁜 생각은 나를 고양시킨다”(54). 특히 크뢰베케르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구세계의 계급 질서와 비교하면서 이곳에서는 “힘들게 노동을 하지만 항상 굶주리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전체 군주가 없으며,” “개인은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처럼 모두가 자유롭다”(54)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가 중농주의적 민주주의가 기원했던 공동체의 근본이다.

신대륙의 자연, 인간의 노동, 그리고 소유의 관계에서 형성된 미국의 모습(landscape)은, 『어느 미국 농부의 편지』에서 “건설한 마을”, “쾌적한 집, 잘 조성된 길, 과수원, 초원, 그리고 다리”(66) 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은, 크뢰베케르가 지적하듯이, 전혀 개간되지 않았던 야생의 공간을 인간의 노동과 같은 노력으로 질서화한 결과이다. 이런 전원적 또는 목가적 풍경을 레오 막스(Leo Marx)는 “중간적 전경”(“middle landscape)으로 칭하며, 더 나아가 “구체제와 야생의 변경지대 사이의 중간지역”(38)으로 설명한다. “중간지역”은, 지형적으로는 도시와 같은 인간의 문명이 가득한 장소와 아직 인간에 의하여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야생의 공간 사이의 지역을 의미

한다. 문명과 야생에서 벗어나 있지만, 동시에 이 두 요소를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중간지역은 미국 문화에서 지형학적 특성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수사는 초기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막스가 말한 “구체제”(l’ancien regime)는 억압과 불평등의 사회이며, “야생의 변경지대”(wild frontier)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인간의 관점에서) 무질서한 공간이다. 크뢰베케르의 중농주의가 지향하는 체제는 신대륙의 자연을 질서화시킨 공간에 구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를 도입해서 구성한 공동체이다. 그는 억압과 불평등의 구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는 질서와 제약 그리고 자유와 권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이 공정한 지역에만, 자유로운 토지 보유자, 자신들이 경작하는 땅의 소유자, 그들이 복종하는 정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한 자신들만의 법률을 입안한 사람들이 정착한다. (79-80)

위 인용문에는 “자유로운 토지 보유자,” (“freeholders”)와 “소유자”(“possessors”)의 어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경작하다”(“cultivate”), “복종하다”(“obey”), 그리고 “법률”(“laws”) 등과 같은 대치되는 어휘들도 사용된다. 이러한 단어 배치는, 중농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제약과 규정 사이의 섬세한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제퍼슨이 추구하는 중농주의적 공화국의 근간이 된다. 레오 막스는 그의 다른 저서 『정원 안의 기계』(*The Machine in the Garden*)에서, 제퍼슨의 중농주의와 중농주의적 공화국의 근간을 ‘중간적 전경’(middle landscape)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중농주의 정치적 의미를 “유럽적인 억압과 변경지대의 야만성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72)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막스의 주장은 제퍼슨의 많은 기록물, 특히 『버지니아주에 대한 소고』(*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책에서

그는 그의 중농주의와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공화국 원리를 제시한다. 이 저서는, 그 당시 프랑스 외교관 마르보아(Marbois)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새롭게 형성 중인 미국에 이상적인 공화국(republic)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미국 초기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김은성 13). 제퍼슨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다”(290)라고 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농부를 제시한다. 제퍼슨의 농부는, 땅의 가치와 덕목을 가장 잘 구체화하면서, 예속, 의존, 억압 등에서 벗어나 자율, 자립, 자족, 독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이다.

제퍼슨의 농부는 그의 중농주의적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이다. 크뢰베케르처럼, 제퍼슨에게 농부는 가치와 덕목이 구체화된 새로운 개인이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과 그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강조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제퍼슨은 소규모 농장 소유를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버지니아 주에 대한 기록물』에서 “소규모 토지 보유자가 국가의 가장 귀중한 부분”(290)이라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독립적인 농부는 미국의 미래 공화국의 토대인 것이다. 또한 크뢰베케르처럼, 제퍼슨도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며 돌보는 소위 자유로운 토지 소유자라 할 수 있는 “freeholder” 개념을 강조했다.

헨리 내쉬 스미스(Henry Nash Smith)는, 미국 초기 중농주의에서 이 자유로운 토지 소유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농업이 진정한 부의 유일한 근원이며, 모든 개인은 땅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땅을 경작하는데 소비되는 노동은 땅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부여하며, 땅의 소유권은, 농부를 독립적으로 만들면서,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을 부여하며, 노동의 과정에서 자연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농부는 도덕적이며 행복해진다. (126)

스미스의 주장은 제퍼슨의 관점과 동일하다. 다소 이상화된 이러한

농부의 모습은 경작자, 자유인, 영어로 ‘husbandman’ 또는 자작농이나 소지주의 의미인 ‘yeoman’ 이미지로 변화한다. 어떠한 명칭이든 이런 농부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면서, 크뢰베케르가 지적한 구세계의 빈곤, 억압,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었던 개인이 권리와 가치를 부여받고 행사하는 존엄한 개인으로 재정립된다.

제퍼슨에게, 땅의 소유와 노동은 동일한 것이며 그 결과인 자산과 자산의 축적은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제퍼슨 연구자인 찰스 밀러(Charles Miller)에 따르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며, 이 권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유롭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노동은 우선적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땅의 소유는 개인의 천부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시키는데 필수적이다”(201).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자립적, 독립적, 그리고 평등한 농부라는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타자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적 공화국을 지향한다.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그 시기에는 바로 실현될 수 없으며 미래 지향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질서화하려는 제퍼슨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그의 중농주의는 신대륙의 미개척 자연을 중간적 조망으로서의 농장으로 질서화 그리고 신대륙에 건설된 새로운 사회와 국가를 질서화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제퍼슨을 포함한 초기 미국인에게, 신대륙의 광대한 땅과 야생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새로운 사회와 개인을 위한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이었다. 자연은 천부적인 권리와 같은 구체제의 억압적인 가치체계와는 전혀 다른 도덕과 가치 체계를 찾고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자연은 실질적인 부의 원천이며, 독립, 자립, 자족,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의 근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미국의 자연은 제퍼슨에게 “행위(action)와 전망(contemplation)을 위한 알맞은 현상이었다”(Miller 251).

농업은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자 결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크뢰베케르와 제퍼슨과 같은 초기 정착자들에게 풍요롭지만 (외면상으로는) 무질서한 공간이었다. 크뢰베케르

는 전혀 개간되지 않고 원시림 상태로 남아 있는 자연은 제약받지 않는 자유, 무절제, 그리고 나태 등의 근원지인 무질서한 공간이라 생각했다. 제퍼슨에게는 이 공간은 근본적으로 풍요롭지만 인간의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야생의 공간을 인간의 관리 즉, 경작으로 질서화 하면서, 제퍼슨은 풍요롭지만 인간의 가치체계가 결여 되어 백지상태로 남아 있던 신대륙의 야생의 공간에서 고도로 경작되고 문명화된 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

제퍼슨은 농업을 통하여 물질적인 행복과 도덕적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신대륙의 땅과 거기에 건설될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농업적이며 미국의 어느 지역에도 비어있는 땅이 있는 한 도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유럽에서처럼 대도시를 기반으로 구성되면, 유럽에서처럼 이 정부도 타락할 것이다. (*Writings* 918)

제퍼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비도덕, 무절제, 나태, 무질서 등의 사회였다. 『버지니아주에 대한 소고』에서, 제퍼슨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국 사회가 “더 동질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지속적인”(212) 사회이기를 강조한다.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농업이 우선적인 정부가 이러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크뢰베케르와 제퍼슨은 미국의 서부 개척과 진출을 강조하는데, 이는 아직은 미개척지이며 “비어있는 땅”이지만, 미래에 미국의 영토가 될 야생의 공간은 농업과 농업에 구현된 덕목을 기반으로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이러한 작은 공동체로 구성된 정부에서, 개인의 행복과 정부의 영구성이 보장된다는 관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퍼슨이 추구하는 농업 기반 공동체는 고도로 조직되고 문명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소망은 다양한 이질성에 의하여 사회가 무질서한 세계로 타락할 수 있는 두려움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은 “독립혁명 이후, 너무 많은 문화적 이질성들이 미국인들에게는 통합적인 국가적 자아를 확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Looby 260).

『버지니아주에 대한 소고』에는, 흑인 노예,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제퍼슨의 반감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제퍼슨은, 이민자와 그들과 유입되는 구체제의 관습과 사고방식이 미국 사회의 동질성과 정부의 영구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해방되면 혼잡이 될 수 없도록 추방되어야”(270) 한다고 주장한다. 제퍼슨의 이러한 배타적 생각은 이런 문제를 다양성의 포용,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대신에, 중농주의적 공화국의 가치와 체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관념에 기인한다.

미국 초기 중농주의는, 동질적이고, 평등적이며, 지속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념이자 전략이었다. 그 당시 제퍼슨을 대표로 하는 중농주의와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을 대표로 하는 중상주의 간의 격렬한 논쟁은 신생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정부 조직의 구조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표출이었다. 중상주의에 관한 제퍼슨의 가장 큰 우려는, 제조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상주의는 중농주의 덕목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의존, 종속, 복종, 무절제, 그리고 무질서의 체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상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체제로서 억압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영구성에 위협이 된다. 제퍼슨은 이러한 관점을, 『버지니아주에 대한 소고』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상품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행복과 영구성으로 보상된다”(291)는 주장으로 제시한다. 이 행복과 영구성은, 중상주의를 포기하고 중농주의로 인하여 유지될 수 있는 가치를 칭한다.

미국의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와의 갈등은 그들의 자연에 관한 차이도 한 원인이다. 제퍼슨은 자연이 외면적으로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질서정연하며 존재 사이들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중상주의자들은 자연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세계이며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해악이나 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퍼슨을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조화와 질서의 세계인 자연이 인간 가치의 근원이며 고도로 조직되고 문명화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한다.

중상주의에 대한 비난, 이민자, 그리고 흑인 노예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이,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다양성, 이질성, 그리고 갈등 등을 상호 관련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배척하거나 동질화시킨다. 따라서 그의 중농주의는 배타적이며, 배타성에는 모순과 한계가 내재한다. 무엇보다도 제퍼슨은 그의 중농주의에 정치, 경제, 윤리의 원리들을 모두 동시에 구현화시키려 했다. 중농주의의 기반인 농업을 수행하는 농부는 단순히 농사만 수행하는 노동자가 아닌, 땅을 돌보며 땅에 헌신하는 ‘husbandman’ 또는 ‘yeoman’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 농부와 그의 가족은 “기본적인 민주적 구성단위”가 되며, 그들이 농업 활동에서 체화한 “정직, 질서, 그리고 지속성”(Hellenbrand 11)의 가치는 더 큰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 그의 중농주의는 제퍼슨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다.

제퍼슨의 중농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원리는 대지의 생산성이다. 그는 그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부의 노동에, 노동이 이루어지는 땅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더해진다. 땅에 뿌려진 밀 한 알에 자연은 20, 30, 40배를 만들어준다. 반면에 제조업자의 노동자에게는 어느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Miller 204에서 재인용)

농부의 정직한 노동과 대지의 자연적인 풍요로움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제퍼슨에게는 진정한 부(wealth)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원리와 더불어, 땅을 소유하는 농부의 독립, 자부심, 자유, 자족 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우애, 협동의 가치와 덕목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원리를 제공한다.

위에서 보듯이, 제퍼슨은 농업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원리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통합하려 했다. 이는, 밀러(Miller)가 지적하듯이, “경제적인 길과 도덕적인 길을 동시에 가려는”(215) 제퍼슨의 방향이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에서 경제와 도덕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역사 과정에서 계속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제퍼슨의 중농주의가 그 당시의 미국의 환경에서 보면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의 이념에는 내재적인 모순과 그에 따른 한계가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와 모순으로 인하여 미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농주의자들은 그들의 원리와 이상을 추진할 수 없었다.

중농주의의 이상과 모순과 더불어, 19세기부터 미국의 농업은, 다양한 이유¹⁾로 제퍼슨을 포함한 중농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아닌, 더 나아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세계화는, 제퍼슨이 예상하지 못한 과정이었겠지만, 그들의 이상에 가장 치명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은 산업 그리고 상업과 함께 대규모로 그리고 독점적인 체제로 조직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농업 체제는 몰락을 했고, 농부는 더 이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장, 금융, 운송 시스템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게 된다²⁾.

특히 미국의 독점적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제퍼슨의 중농주의 비전은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중농주의자들의 비전은 개발과 진보의 시대에 수사(rhetoric), 이상, 또는 일종의 향수로 유지된다.

3. 웬델 베리의 중농주의: 현실과 실천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국의 모든 구조도 또한 급격하게 변화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미국 사회

- 1) 프레드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는, 미국의 서부 변경지대(frontier)가 미국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제퍼슨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변경지대의 소멸과 함께 제퍼슨의 시대도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터너의 주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필자가 그의 책에서 인용하지 않았기에 그의 책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헨리 내쉬 스미스(Henry Nash Smith)는 미국 서부 개척과 자영 농민 정착을 위해 1862년에 제정된 소위 ‘자영 농지법’(Homestead Act)도 결국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화와 양립할 수 없어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책 190-191쪽 참조).
- 2) 밀러(Miller)는 제퍼슨의 중농주의 원리와 가장 대조되는 정책으로 뉴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뉴딜 정책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가장 노동자 계층을 양산했고, 거대한 정부의 역할이 정당화되었으며, 특히 이제는 거대한 농업용 기계 도입과 기계 중심 농업이 확산되었다(269 참조).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황폐해진 농촌과 농민의 삶은 역사나 문학 작품 등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햄린 갈랜드(Hamlin Garland)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 미국의 중서부 농촌을 배경으로 그 지역의 비참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다룬다. 그의 대표작 『밭길 잦은 길』 정도로 번역되는 *Main-Travelled Roads*와 다른 작품에서 작가는 농촌의 목가적 또는 이상적 모습 그리고 독립적인 미국 농부 정체성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드러낸다. 또한 농촌에서 고통스런 노동을 하면서도 비참한 생활환경³⁾에서 간혀있는 농부들의 현재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갈랜드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국 시인 애드윈 알링턴 로빈슨(Edwin Arlington Robinson)은 그의 문학적 가상 공간인 틸베리 타운(Tilbury town)을 배경으로 미국 농촌 공동체 붕괴 그리고 농촌 경제의 몰락을 보여준다. 로빈슨은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로의 경제 집중,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급격한 유입 등 때문이라 주장한다. 로빈슨의 작품에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들 그리고 경제 붕괴로 인한 자살 등이 많이 묘사되는데, 이는 농촌의 붕괴와 그로 인한 제퍼슨이 강조했던 중농주의의 가치와 도덕의 몰락을 암시한다. 갈랜드와 로빈슨 외에도 이 시기의 다른 작가들도 미국 농촌의 붕괴와 비참한 농민들의 삶을 그들의 문학적 사명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신랄하게 비판한다⁴⁾.

이러한 작가들의 기록은 19세기 이후 미국의 경제, 정치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던 시기에 나타난 결과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서 미국 사회에 유산 또는 일종의 향수로 잠재하고 있던 제퍼슨의 중농주의 비전을 구현하고 직접 실천한 사람이 베리이다. 즉, 작가이자 농부인 베리는 작품 활동과 소규모 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초기 미국 중농주의 비전과 덕목을 추구하면서 실천한다. 특히 제퍼슨과 같은 초기 중농주의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생태 의식을 농업 활동

3) 갈랜드는 『밭길 잦은 길』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주거 환경을 ‘오두막집’(hovel) 또는 ‘구덩이’(hole)와 같은 어휘로 드러낸다.

4) 이 작가들 외에도 1920-30년대 농민들이 당한 억압과 착취를 다룬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도 잘 알려져 있다.

과 결부하면서, 베리는 미국의 상황을 넘어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누적되었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안을 제시한다.

베리에게, 농업은 먼저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땅에 가한 폭력과 착취에 대한 속죄 그리고 그 속죄를 위한 실천이다. 베리는 「역사」라는 시에서, 조상들의 땅에 대한 무례함과 무자비한 파괴가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자신의 농업이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나의 역사의 모욕과

폐허를 거치면서, 나는 그것의 찌꺼기에

도달하였고, 여기서 농장의 시작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존재하려는

나의 예술이 되려는 의도였다.

이를 통하여, 나는 나의 소망을

당부하고자 한다. 즉,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장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Through my history's despite

and ruin, I have come

to its remainder, and here

have made the beginning

of a farm intended to become

my arts of being here.

By it I would instruct

my wants: they should belong

to one another and this place. (*SP* 100-101)

이 구절은 베리가 지향하는 농업의 의미를 압축하고 있다. 먼저, 산업 자본주의와 거대 기업농업에 의해서 땅과 문화가 황폐해진 상태로 남아 있는 이 시점이 농업의 시작점이라 강조하며, 베리는 농업 특히, 소규모 농업이 이 파괴적인 체제를 종식하며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땅과 자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리는 농업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의 산문에서 “좋은 농장

의 훌륭한 농부는 최상의 질서를 (창조하는) 장인, 또는 일종의 예술가이다”(GG 124)라고 명시한다. 예술가처럼, 농부는 모든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로 농사를 시행한다. 베리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에게 “농장은 내적인 관계를 구현하고 지속시키는 형식이며”, 진정한 농업은 “계약과 질서를 인정하고 실재하는 존재들을 관계시켜 새로우면서 생산적인 질서를 창조한다”(Triggs 202-03). 또한 농업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속해 있는 관계이며, 인간의 노동은 이 관계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성원과 그들의 관계는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특히 자연이나 대지가 인간의 종속물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대지에 속해 있다는 주장은, 베리의 중농주의적 덕목과 소위 청지기 개념으로 연결된다. 그의 덕목과 청지기 개념의 핵심은 헌신, 충절(또는 정절 fidelity), 존경이다. 농사는 땅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이다. 이 행위가 땅에 대한 착취나 오용이 될 수 있고 또는 인간과 땅에게 모두 이로운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다. 베리의 저서 『좋은 땅의 선물』(*The Gift of Good Land*)을 관통하는 핵심은 땅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이다. 선물로 받은 땅은 인간의 소유와 지배 대상이 아닌 헌신, 충절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다.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양육하기, 보호하기, 보살피기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존경하며”(Murphy 239)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베리가 생각하는 농업 또는 농사의 기본적인 의미이다.

청지기의 마음과 덕목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노동이다. 베리에게 노동, 특히 기계를 배제하고 직접 수행하는 고된 노동은 헌신, 충절, 존경, 성실, 겸허 그리고 근면과 같은 덕목들을 실천하는 일종의 수행이다. 베리는 이러한 덕목 외에도 땅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에 순응이라는 다른 덕목도 추가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은 미국 중농주의 전통에 생태 의식과 비전을 연결시킨다. 『지속적인 조화』(*A Continuous Harmony*)에서 “농업은 일종의 기술(technology)이며” 따라서 “농업은 경제의 요구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농업 전문가들을 비난하며,

“농업의 원리는 경제가 아니라 생태(학)”(100)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베리의 생태 의식과 비전은 그의 중농주의 비전을 더 강화시키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 동시대의 복합적인 위기에 근원적인 대안으로 확대된다.

베리에게 농업 노동은 다양한 의미를 구현한다. 먼저, 노동은 인간과 대지를 직접 연결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상호성의 행위이다. 베리는 현재의 정치, 경제, 그리고 생태적 위기는 산업자본주의와 거대 기업 형태의 농업의 출현이라고 비난한다. 그에 따르면, 거대 기업 농업 체계는 기계에 의존하고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면서 농부와 대지, 인간과 자연을 서로 완전히 유리시키고 있다. 이 유리의 결과인 이원론적 관계에서 초기 중농주의자들과 베리가 추구한 덕목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덕목에 기반한 인간의 공동체도 붕괴되었다. 『지속적인 조화』를 비롯한 다른 산문에서, 베리는 이원론(dualism)을 직접 언급하며, 이 태도는 특히 거대 기업 농업 체제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이 이원론적 태도가 가장 파괴적인 질병임을 계속 강조한다.

산문 외에도 시에서도 베리는 이원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 「보일 수 없는 동물에게」(“To the Unseable Animal”) 그리고 「참새」(“Sparrow”)와 같은 시에서, 베리는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개체는 서로 비이분법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건강이 구성원 자격이다」(“Health is Membership”)는 이원론을 문화적 질병으로 간주하고, 그 치유 방법으로 생태적 전체성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 비전이 가장 드러난 「땅을 비옥하게 하기」(“Enriching the Earth”)에서는 거름을 통한 농사 방법이 소개된다. 베리는 이 농사 방법, 즉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농부와 땅이 이원론적 거리감 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농사는 “건강한 인내”로서 “마음과 물질적 실재의 비 데카르트적 통합을 통해 근본적 실재로의 완전한 전념을 획득하는 능력이다”(Scigaj 138).

베리에게 농업은 그의 덕목들과 생태적 비전이 통합되는 전체론적인 참여를 실천하는 것이며, 농업에서의 노동은 상호의존성과 관계를 실현시킨다. 하지만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고된 노동을 통한 농

사는 속죄이자 의식 행위이다. 미국 역사에서 농업이 무시되거나 다른 분야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국가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 분야였다. 이러한 상황은 베리의 『미국 흔들기』(*The Unsettling of America*)에서 구체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기록되어 있다. 베리에 의하면, 미국의 농업은 미국의 정부 기관 그리고 대학교에 의하여 과학화 그리고 전문화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집중화가 농업을 지배하고, 최대한 생산성을 위해 기계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땅은 자작 농의 소유 대상이 아니라 독점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곳」(“Where”)이라는 제목의 시는 베리가 직접 매입하여 자신의 노동으로 농사를 짓는 그의 농장의 역사를 추적한다. 베리에 따르면, 자신의 현 농장은 최초의 야생의 공간, 초기 정착민의 정착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투기 대상으로 변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은 착취를 당하였다. 베리는 이렇게 착취당하고 폐허로 방치된 땅을 구입하여 청지기의 마음으로 땅을 보살피며 농사를 짓는다. 이 시에서 베리는 이 땅의 역사에서 땅은 정복과 변형의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음을 암시한다.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베리와의 우려와는 달리, 제퍼슨은 신생국 미국에 가장 적당한 국가 형태는 중농주의적 공화국이며, 이 체제의 기반은 소규모 농업에서 가능한 덕목들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대륙에서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자작 농부들이 우애와 협동 등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윌리엄 크로논(William Cronon)의 『땅에서의 변화들』(*Changes in the Land*)에 서술된 기록을 참고하면 제퍼슨이 그 당시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이상적인 중농주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크로논은 그의 책에서, 뉴잉글랜드에 처음 식민지인들이 정착했던 시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지역의 땅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기록한다. 크로논에 따르면, 신대륙에 이주해온 정착민들은 “신대륙의 땅을 개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울타리로 경계를 강화하고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였다.” 초기 정착민들에게 땅은 협

동과 우애의 공동체 기반이 아니었으며, “부를 창조하고 축적하려는 대상으로 변형”되었다.

크로논은 계속해서 “19세기 이후 미국의 사회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땅에서의 인간 노동과 생산물은 분리되어 서로 소외되었으며 인간 공동체와 자연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169-170). 노동과 생산물의 분리와 소외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비난받고 있는데, 베리의 이원론 비판은 농업에서 이러한 소외와 분리를 포함한다.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땅의 변형과 그 결과 그리고 소외론을 포함한 크로논의 핵심적인 주장은, 「역사」, 「어느 곳」과 같은 시 그리고 『미국 흔들기』 등의 산문에서 베리가 강조하는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크로논과 베리는 땅의 변형은 생태학적으로도 자멸적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농업이 산업자본주의와 거대 기업형 농업 시스템에 예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에 구현된 덕목들의 상실, 땅의 착취, 노동과 생산물의 분리, 인간 공동체의 붕괴, 자작농 계층의 몰락, 땅의 독점,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 등과 같은 폐해의 역사가 찌꺼기처럼 정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위에서 인용한 「역사」에서 베리가 직접 발언하듯이, 베리의 농사의 시작점이다. 공간적으로는 땅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시간적으로는 역사의 찌꺼기의 정점에서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베리 자신이 이 역사 유산의 상속자라는 죄의식 속에서 속죄 그리고 땅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일종의 의식(ritual)⁵⁾ 행위이다. 베리의 속죄와 의식의 행위는 직접적인 노동으로 구현된다.

베리의 노동은 기계의 도움 없이 따라서 아주 고된 노동이다. 이 노동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보상, 속죄, 그리고 참회의 행위이다”(Murphy 239). 또한 고된 노동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며 계속되는 고된 노동은 의식의 차원으로 승화된다. 속죄와 치유를 위한 의식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의식은 근본적인 수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베리는 그의 산문집 『

5) 베리는 그의 저서 『미국 흔들기』에서, 종교가 생명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러한 점에서 농사는 실용 종교이며 종교의 실천이자 의식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지속적인 조화』(A Continuous Harmony)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제도적인 기계 시스템을 어설피게 수정하여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피상적이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요구되는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76)

직접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은 단순한 농경 행위가 아닌 고도의 도덕적인 생활 방식이다.

베리에게 농업은 신체와 마음의 행위이다. 그의 시 「보잘것없는 농장 조성」(“The Making of a Marginal Farm”)에서 베리는 가장자리 땅을 농장으로 가꾸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 과정이 그 자신의 마음의 일 또는 활동(workings)의 과정으로 투영되는 것을 제시한다. 이 시는 베리 자신과 그의 가족이 농장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스코트 슬로빅(Scott Slovic)이 설명하듯이, 농사를 짓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평온해지는 것을 배우고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과정”(129)임을 암시한다. 이러듯 그에게 농업의 노동은 신체적 행위이면서 정신과 마음의 수련이다.

베리의 농업은 고된 농업의 신체 행위 그리고 헌신, 보살핌, 충절의 덕목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행위이다. 베리는 이러한 의미의 농업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이 변화가 세계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농업의 복원은, 상실된 덕목들의 재획득, 착취된 땅의 복원, 노동과 생산물의 일체화, 자작농 계층과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생태와 환경 위기의 해결책 등을 위한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안이며 베리의 중농주의의 핵심이다.

4. 결론

제퍼슨의 중농주의와 베리의 중농주의는 농업의 중요성, 농부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자립, 독립, 협동, 우애와 같은 덕목 추구,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을 기반으로 소규모 공동체 형성 등에서 공통점을 공유한

다.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미국 사회를 위한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프로그램이며 궁극적으로는 중농주의적 공화국 건설과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에 반하여, 베리의 중농주의는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의 변질 그리고 그 변질이 미국 사회에 미친 결과들을 수정하고 극복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팽창적 자본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단위 기업농업 방식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제퍼슨과 베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부가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인식도 공유한다. 그들에게 농부는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으로서 그들이 추구한 덕목들의 구현체이다. 그들의 농부는 건설하면서 자립적인 공동체 형성과 유지의 근원이며 민주적 사회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제퍼슨이 18세기 중요한 가치였던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농부라는 전형에 투영시켜 그의 농부 상은 다소 이상적인 구현체였다면, 베리의 농부는 실천적이며 덕목들을 직접 복원하는 실존적 인물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프로그램으로 국한되는 반면에, 베리의 중농주의는 실천적이며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제퍼슨의 중농주의는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면, 베리의 경우는 과거에 대한 비판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두 사람의 시대적 차이의 결과이다. 즉, 제퍼슨은 18세기에 독립 이후 이상적인 미국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정치, 경제원리를 제시하였지만, 그 후 역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제퍼슨의 비전은 실패하였다. 베리는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실패의 과정과 결과를 목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만의 중농주의적 비전을 주장하고 직접 실천한다. 따라서 베리는 제퍼슨이 강조했던 중농주의 덕목에 참회, 충절, 그리고 헌신과 같은 덕목들을 추가한다. 이 때문에 그의 중농주의는 정치, 경제적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책무이다.

제퍼슨이 그의 중농주의에서 강조했던 비전은 미국이 독립하기 시기에는 합리적인 정치, 경제적 프로그램일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서 제퍼슨의 비전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몰락하고 단지 소수의 대안 또는 향수로 잠재되어 유지되었다. 스미스는 그의 책 『처녀지』(Virgin Land)의 「농

업적 유토피아의 실패」(“Failure of the Agrarian Utopia”)의 장에서 미국 초기의 중농주의적 이상의 실패 이유를 제시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먼저 이 실패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격이 주 원인이었다. 그리고 산업화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더 가속화되었다. 특히 땅 투기와 철도 사업 회사의 독점 등은 중농주의적 비전을 완전히 몰락시켰다. 또한 자작농을 지원하는 법 규정도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사회 상황과 전혀 양립할 수 없어 효력이 없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베리는 제퍼슨이 예견하지 못했던 산업화와 자본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산업형 농업 체제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의 책 『미국 흔들기』는 미국 농업의 실패, 이에 대한 역사적 맥락 그리고 현재의 농업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제시한다. 베리에게 산업화된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농업 체제가 추상적 가치 시스템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점이다. 추상적 가치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억압과 지배를 부드럽게 정당화한다. 따라서, 『미국 흔들기』에서 베리가 줄곧 강조하듯이, 농업의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다. 농업의 가치와 덕목은 파괴된 사회관계를 다시 복구하고 지속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리이다.

제퍼슨과 베리에게 농업은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실제 이들은 질서화된 사회를 추구하였다. 먼저 농업은 있는 그대로의 야생의 공간을 인간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자연을 질서화하면서 동시에 자연에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유입시킨다. 제퍼슨과 베리는 이렇게 질서화된 공간을 기반으로 질서 있는 인간 공동체를 원하였다. 물론 여기서 질서는 특정한 이념이나 관료적 통치 체제에 의한 질서가 아닌, 그들이 추구했던 덕목들로 자율과 절제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형성한 질서이다. 하지만 제퍼슨은 중농주의가 초기 미국 사회를 조화롭게 질서화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이민자, 흑인 노예, 그리고 원주민의 배척에 알 수 있듯이, 덕목들은 그 당시 주류였던 백인 계층만의 가치였고 이들을 배제한 동질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에 반하여 베리에게, 농업은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조화로운 질서였다. 베리는 자신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이분법적 관

계를 복원하였고 이 관계를 가족 그리고 인간 공동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베리의 직접적인 농사짓기는 그의 중농주의적 비전의 실천이며, 무엇보다도 이 실천을 통하여 베리는 자연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중농주의 비전에 생태의식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퍼슨과 같은 초기 중농주의자들이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폭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위기까지 전 세계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베리의 통찰과 대안이다.

[Abstract]

Agrarianism in Thomas Jefferson and Wendell Berry

Kim, Eunseong(Korea University)

For Thomas Jefferson and Wendell Berry, first of all, agrarianism is a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ogram.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share the belief that farmers, who serve as a key figure for their agrarian program, are embodiment of the virtues such as self-reliance,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they pursue. Their agrarianism and farmer figures offer the source of a self-sufficient and cooperative community, which they hope leads to a democratic society.

While Jefferson projects universal human rights onto the figures as an ideal embodiment of his time's values, Berry's farmers are practical and existential figures who restore the virtues. The difference results in Jefferson's agrarianism that is limited to a political and economic program, while Berry's agrarianism is realized as more practical and concrete program. In addition, Jefferson's agrarianism is mainly a program for the future, while Berry's agrarianism includes a program of criticism of the past and an attempt to overcome the former agrarianism's failure.

This difference, of course,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periods between them. Jefferson presented political and economic principles for an ideal American nation and society

in the post-independence 18th century, but his vision was not realized in the course of American history. Berry, on the other hand, witnesses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is failure Jefferson and other early agrarians did not anticipate and advocates his own agrarian vision as a solution or an alternative. Berry, therefore, adds virtues such as fidelity, atonement, humility, and dedication to the agrarian virtues emphasized by Jefferson. His agrarianism is both a political and economic program and an ethical imperative.

Key words : Thomas Jefferson, Wendell Berry, agrarianism, ideal and reality, farmer figure, capitalism, agriculture

[참고문헌]

- 김은성. 「토마스 제퍼슨의 『버지니아 주에 대한 비망록』에 나타난 자연, 인간, 그리고 사회」. 『인문언어』 17.2 (2015): 11-37.
- Berry, Wendell. *A Continuous Harmony: Essays Cultural & Agricultural*. New York: Harcourt Brace, 1972. [CH로 약기]
- _____. *The Gift of Good Land: Future Essays Cultural and Agricultural*. San Francisco: North Point, 1981. [GG로 약기]
- _____. *The Selected Poems of Wendell Berry*. Berkeley: Counterpoint, 1988. [SP로 약기]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2.
- Crevecoeur, J. Hector St. John de.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and Sketches of Eighteenth-Century America*. Ed. Albert E. Stone. New York: Penguin, 1963.
- Cronon, William. *Changes in the Land: Indians, Colonists, and the Ecology of New England*. New York: Hill and Wang, 1983.
- Hellenbrand, Harold. "Roads to Happiness: Rhetorical and Philosophical Design in Jefferson's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Early American Literature* 20.1 (1985): 3-23.
- Jefferson, Thomas. *Thomas Jefferson: Writings*. Ed. Merrill D. Peterson.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84. [Writings로 약기]
- _____.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Jefferson 123-325.
- Looby, Christopher. "The Constitution of Nature: Taxonomy as Politics in Jefferson, Peale, and Bartram." *Early American Literature* 22.3 (1987): 252-273.
- Marx, Leo.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 New York: Oxford UP, 1964.
- _____. "Pastoralism in America."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 Ed. Sacvan Bercovitch and Myra Jehlen. Cambridge: Cambridge UP, 1986. 36-69.
- Miller, Charles A. *Jefferson and Nature: An Interpret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3.
- Murphy, Patrick D. "Penance or Perception: Spirituality and Land in the Poetry of Gary Snyder and Wendell Berry." *Earthy Words: Essays on*

- Contemporary American Nature and Environment Writers*. Ed. John Cooley.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4.
- Scigaj, Leonard M. *Sustainable Poetry: Four American Eco-poets*. Lexington: UP of Kentucky, 1999.
- Slovic, Scott. *Seeking Awareness in American Nature Writing: Henry Thoreau, Annie Dillard, Edward Abbey, Wendell Berry, Barry Lopez*. Salt Lake City: U of Utah P, 1992.
- Smith, Henry Nash. *Virgin Land: The American West as Symbol and Myth*. Cambridge: Harvard UP, 1978.
- Triggs, Jeffery Alan. "Farm as Form: Wendell Berry's *Sabbath*." *American Authors: Wendell Berry*. Ed. Paul Merchant. Lewiston: Confluence Press, 1992.